Ⅳ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사례

1. 알리안츠의 ESG 경영실천

알리안츠 그룹은 보험경영의 두 축인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ESG 경영에 통합하여 관련된 리스크를 인식하는 동시에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새로 부상하는 사업기회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에 특화된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도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와 함께 보험산업 지속의 근간이 되는 산업의 평판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는다.

가. 지속가능보험원칙[61)]

지속가능보험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보험 가치사슬의 모든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인식, 평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략적 접근을 의미한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거수하여 그중 특정 계약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산업이다.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에게 믿을 만하고 좋은 품질의 보험상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점증하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가 내포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 이슈에 대한 보험회사의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은 위험관리 전문산업인 보험산업에는 사업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의 기반인 신뢰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금융 이니셔티브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 회의(Rio+20 Conference)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of Sustainable Insurance; PSI)은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산업 ESG 경영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

61) UNEP Financial Initiative(2012)

해 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속가능보험원칙을 통하여 보험산업이 위험관리 전문성을 활용하여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지속가능보험원칙에 가입하면 매년 공시와 회비 납입 의무를 가지게 되며,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및 정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속가능보험원칙은 4개의 원칙과 이에 따른 각 보험회사 기능의 시행강령들로 이루어진다.

원칙 1. 의사결정에 보험사업 관련 ESG 이슈를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이사회로부터 리스크 관리 및 위험인수, 상품개발부터 손해사정, 상품판매, 마케팅 그리고 자산운용에 이르는 전 부서의 업무에 ESG 이슈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원칙 2. ESG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험관리 그리고 해결방안 개발을 위해 고객 및 사업 파트너와 협업한다. 이를 위해 고객과 공급망 그리고 원수보험, 재보험과 판매조직에 걸쳐 지속가능보험원칙의 채택과 ESG 이슈에 대한 경각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원칙 3. ESG 이슈에 대한 사회전반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당국과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한다. 이를 위해 정부, 규제당국 및 정책당국에 ESG 이슈의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강화 및 리스크 경감 정책과 리스크의 통합관리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NGO, 협회, 학계, 미디어 등과의 소통을 통하여 ESG 이슈의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원칙 4. 지속가능보험원칙 이행의 진전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ESG 이슈 관리에 관한 진전을 평가, 측정, 모니터링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ESG 관련 공시 및 보고 체계에 참여하며 고객, 규제당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나. ESG를 통한 보험회사의 기회

알리안츠는 ESG 관련 동향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ESG 개발과 연계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환경 보호와 사회적 포용의 필요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마다 알리안츠는 ESG 관련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그룹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1) 보험인수 측면

가) 지속가능보험 솔루션

알리안츠 그룹 전반에 걸쳐, 지역단위 회사와 글로벌 사업부에서 환경과 사회적 이익이 되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가능 솔루션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 여섯 가지 지속가능 솔루션 정의에 따른 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표 Ⅳ-1〉 참조).

〈표 Ⅳ-1〉 지속가능 솔루션 정의

환경 기준	사회 기준
• 환경 그리고/또는 기후변화(예: 신재생 에너지, 환경친화 상품 및 서비스, 녹색 인프라 등)에 초점을 맞춘 시장/기술의 개발을 지원 • 고객의 재무(리스크 경감) 그리고/또는 규제(예: CO_2 규제, 환경배상책임 등) 리스크 노출을 경감	• 사회적 취약층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활성화 • "도우미를 돕는" 상품을 포함(예: 자산/단체 직원/봉사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보험제공이 되지 않았을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상품/서비스에 맞춘 보험 솔루션)
• 적어도 다음 중 하나에 대한 보존 또는 완화: 자연자원, 생태 다양성, 환경 또는 기후 변화(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공해발생을 막는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장려 또는 보상 등)	• 사회적 취약층에 특별히 맞추어진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장려(예: 금융 서비스에 접근이 어렵던 소외계층의 리스크를 경감) • 사회적 취약층 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경감도 일부 적용
• 고객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환경리스크 보장과 기후변화 영향 대응(예: 날씨 리스크) 그리고/또는 리스크 경각심 제고 그리고/또는 리스크 노출 경감 유인 제공	• 사회적 취약층 관련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예: ESG 취지 관련 마케팅이나 계획 지원)

자료: Allianz(2018)

나) 녹색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보험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을 갖기 시작하며 글로벌 전력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재생 자원을 통한 발전은 효과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대의 핵심 인프라는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상호연계 되어 사이버와 테러 공격이나 극단적 기후현상과 같은 거대한 충격과 이로 인한 파급 및 연쇄효과에 노출

되어 있다. 또한 녹색 에너지 발전을 위한 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투자자, 건설사, 운영자 및 제조사는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다.

알리안츠는 녹색 에너지 사업의 주요 보험인수자로 계획에서 해체까지 모든 사업 단계에 걸쳐 책임보험, 설치 및 건설 전손보험, 해상보험과 기술자문 솔루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한다. 지역 회사와 함께 알리안츠 기후 솔루션, 알리안츠 재보험과 알리안츠 글로벌 기업특종보험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전통적 보험상품에 더하여 알리안츠는 장기 성과 보증을 포함한 리스크 평가, 품질 보증, 태양광 발전 보증 등이 통합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 자산운용 측면

가) 소유자산 투자의 ESG 기회

ESG 주제와 연관된 투자기회를 찾을 때, 알리안츠의 핵심 포커스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 녹색채권 투자, 지속가능 인증 건물에 대한 투자, 개발도상 경제에 대한 인프라 투자, 녹색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기후 또는 다른 환경 문제들을 완화하는 것이다.

나) 지속가능 자산 관리 솔루션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보완하기 위하여,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운용(Allianz GI)과 PIMCO와 같은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하여 알리안츠는 지속가능 책임투자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들은 지속가능 테마 소매 펀드에서 특정 필요와 기관투자가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ESG 솔루션까지 다양하다.

2. 보험인수

보험인수 측면에서 알리안츠의 ESG 경영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기후 리스크를 인식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와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위

험관리 전문회사로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알리안츠 그룹의 보험인수 관련 지속가능 사업활동을 요약할 수 있다.

가. 신재생 및 모빌리티

알리안츠는 고객의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예방적 방법에 유인을 부여하고 기후 관련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기후 리스크의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알리안츠 글로벌 기업보험(ACGS)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컨설팅이나 독일의 지속가능개발 협력회사(GIZ)와 함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시험적인 혁신 보험 솔루션을 예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의 기후 관련 사업은 기후변화의 현재 및 미래 영향을 연구하여 최적의 리스크 관련 컨설팅도 사회와 고객에게 제공한다.

농업 분야의 마이크로보험과 재보험 경험을 바탕으로, 알리안츠는 혁신적 기후 리스크 보험을 취약 지역에 제공한다. 여기에는 날씨 지수형 보험과 수확 손실 및 가축 피해 보장 등이 포함된다.

알리안츠는 기후 리스크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5억 명에게 2025년까지 기후 리스크 보험을 제공하는 G7 기후 리스크 보험 이니셔티브에 따른 InsuResilience Global Partnership을 지원한다. 그리고 보험개발포럼(Insurance Development Forum)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들을 자연재난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술하였듯이 알리안츠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 관련 손해보험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2018년 5월 선언하였다. 또한 알리안츠는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또는 표준화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알리안츠 기후 솔루션은 재생 에너지 산업을 보험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통해 지원하는데,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전문적 보험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2017년 시작된 SURE(Scaling Up Renewable Energy)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험을 통한 보장을 터키와 아프리카의 여러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여, 이들이 저탄소 국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알리안츠 재보험과 알리안츠 기후 솔루션의 그룹 전문가들이 지역 기업과 함께 모범규준을 개발하고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표 Ⅳ-2〉 알리안츠 지속가능보험 솔루션 매출

(단위: 개, 십억 유로)

연도	지속가능 솔루션	지속가능 매출
2019	203	1.33
2018	185	1.56
2017	165	1.21
2016	156	1.1
2015	151	1.1

자료: Allianz, Sustainability Report, 각 연도

알리안츠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가계성 보험에서 주행거리 기반 보험료와 사용 횟수 기반 보험료 등을 통하여 보험료도 할인되면서 배기가스 배출을 낮추도록 소비자에게 유인을 주고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위한 보험료가 낮은 자동차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네덜란드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위한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기업성 자동차보험으로는 Green Fleet Services를 통하여 기업의 자동차에 대한 연비 최적화와 환경친화적 운전습관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손상에 대해 알리안츠는 환경보존 측면에서 부품의 교체보다 수리를 유도한다.

알리안츠는 새로운 모빌리티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가계성 보험에도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안츠 파트너(Allianz Partners)를 통하여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 지원을 통한 도시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공유 전기 스쿠터와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배상책임과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알리안츠 터키(Allianz Turkey)는 건물 지붕에 사용되는 전기 장치와 태양광 장치 관련 가계성 보험을 개발하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지원한다.

나. 자연재난 관리

지진, 홍수, 산불, 폭풍 같은 자연재난은 지역사회를 초토화 시키고 재난 복구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최근 10년간 15배 높아졌고, 스위스 리[62]에 의하면 2020년 경제적 손실이 2,0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62) Swiss Re(2021)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9년 1,90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알리안츠는 자연재난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룹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거대재난 리스크(Cat Risk)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2019년 새로운 거대재난 리스크 자료 창고(Cat Risk Data Warehouse)를 열어 재난 리스크 모형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리스크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알리안츠 재보험(Allianz Re)은 풍수해나 지진과 같은 가장 중요한 자연적 위험(Peril)에 대한 지역 자회사의 보험인수에 사용되는 Global Hazard Layer를 최근 시작하였고,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미국과 유럽의 산불에 대한 Global Wildfire Layer도 추가하였다.

다. 사이버 보안[63)]

사생활 침해, 해킹 사고, 대형 IT 서버 다운과 같은 사이버 리스크는 사업상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였다. 2020년 알리안츠 리스크 바로미터에 의하면 사이버 사고는 전 세계 사업상 리스크 중 수위를 차지하였다.[64)] McAfee[65)]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이버 범죄자들의 기법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이버 사고는 소송에 휘말리기 쉽고 집단소송 가능성도 있어 기업에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알리안츠 글로벌 기업보험(ACGS)은 사이버 보험을 지난 10여 년간 제공하며 사이버 관련 각종 리스크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왔다. 보장하는 손해는 직접 손해(기업휴지, 복구, 위기 소통 등)이며 제3자 피해(데이터 해킹 사고, 네트워크 다운 등)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ACGS는 사이버 관련 보험을 평가하여 사이버보험 관련 보장을 영향에 따라 무보장에서 전액보장까지 다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 말부터 출시되는 모든 보험상품에 반영될 예정이다.

---

63) 보험산업의 신규 리스크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가 대표적임. 이에 따라 기존 ESG 리스크에 디지털 리스크를 더하여 ESG +D로 표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보고서에 디지털 리스크와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함

64) 2021년 알리안츠 리스크 바로미터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중단(Business Interruption)과 팬데믹 발병(Pandemic Outbreak)에 이어 3위를 차지함

65) McAfee(2018)

라. 취약층 보험지원

〈표 Ⅳ-3〉 알리안츠 신흥국 보험 매출

연도	시장 수	소비자 수(백만 명)	원수보험료(백만 유로)
2019	12	49.4	410.1
2018	11	44.1	310.3
2017	11	58.7	256.5
2016	11	55	303
2015	11	58.6	135.1

자료: Allianz, Emerging Consumers Report, 각 연도

알리안츠는 1926년에 독일에서 최초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출시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저소득 국가,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미 여러나라에서 취약층을 위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신흥국 보험시장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심각한 보험 취약지대이기도 하므로 알리안츠는 이들 보험 취약층에 합리적인 가격의 효과적 보험상품을 통하여 보장을 제공한다. 이는 알리안츠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9년 신흥국 취약층에 대한 보험상품 매출은 4,940명의 소비자에게 4억 1,010만 유로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가 제공되었다. 이는 소비자 연간 1인당 8.31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2018년 4,410만 명의 소비자에게 제공된 3억 1,030만 유로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표 Ⅳ-3〉 참조).

전통적 금융서비스 인프라는 이들 신흥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사각을 만들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신흥국 취약층에게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가 된다. 알리안츠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마케팅(Go-to-market Approach)과 디지털 기술 회사와 합작을 통하여 신흥국 소비자들의 필요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알리안츠에서 신흥국 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적 보험상품을 공급한 예로 2019년 여름 신흥국 인슈어테크 회사인 BIMA와 독일의 지속가능개발 협력회사(GIZ)와 협동으로 모바일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출시하였다. 새로운 보험상품을 통하여 2020년 아프리카 가나에서만 수십만의 새로운 소비자가 신규 건강보험을 접하게 되고 향후 420만 유로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자산운용

가. 지속가능 주제 투자

ESG 리스크 관리와 함께 알리안츠는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인프라 개발과 같은 환경 및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회를 찾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리안츠는 지속가능 주제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대형 투자자로 2019년 말 지속가능 주제 투자는 294억 유로에 이른다. 런던의 Thames Tideway Tunnel이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인프라, 핀란드의 전력망과 페루의 풍력발전 공원 등을 지속가능 주제 투자의 예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는 신흥 경제의 지속가능 인프라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들 인프라 시장에서는 재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알리안츠는 물론 다국적 개발은행과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개발과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알리안츠는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하여 신흥 아프리카 인프라 펀드(Emerging Africa Infrastructure Fund; EAIF)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액은 7,500만 유로와 250만 달러이며 EAIF의 첫 번째 보험회사 투자자로 12년간 투자한다.

알리안츠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 또한 이들 신재생 에너지의 혁신과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투자도 한다. 예를 들면 AllianzGI 신재생 에너지 기금, Meridiam 전환기금과 소형 수력발전소 기금 등이다. 알리안츠는 2017년 197억 유로, 2018년 251억 유로, 2019년 294억 유로 등 해마다 지속가능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나. 부동산 투자

알리안츠 부동산(Allianz Real Estate; ARE)은 알리안츠 그룹의 부동산 투자와 자산관리 전문회사로 부동산에 특화된 투자전략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상업 부동산 시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직·간접 부동산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투자자 및 자산 관리자로서 알리안츠는 ESG 요소를 부동산 사업에서 “매입-관리-판매” 사이클에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2050년 탄소 순배출 0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부동산 산업이 40%에 달하는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서 장래 부동산 자산이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하여 심각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알리안츠 부동산은 전 세계에 걸쳐 146억 유로를 친환경 인증 건물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보유 포트폴리오의 환경 보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글로벌 탄소 회계 및 보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다. 주주행동주의 및 수탁자책임 활동

알리안츠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활동 및 기업지배구조가 미치는 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위임투표 등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정책을 가지며 이를 수탁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알리안츠는 환경과 사회 이슈 관련 투표를 수탁자 책임의 이행에서 핵심적 부분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최근 공시된 2020년도 알리안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의하면 알리안츠 글로벌투자(AllianzGI)는 224개 회사, 491개 주제에 대하여 303회에 걸쳐 경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수탁자책임을 위한 주주행동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10,183회 투표하였으며, 이 중 72%의 경우에 경영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권하였다. 그리고 환경과 사회 관련 주주결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90%에 가까운 찬성 비율로 투표하였으며, 지역 환경 영향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100% 찬성하였다. 2019년도에도 알리안츠 글로벌투자(AllianzGI)는 303개 회사의 771개 이슈에 대하여 448회 경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수탁자책임을 위한 주주행동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9,532회 투표하였으며, 이 중 77%의 경우 경영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권하였다.

2020 수탁자책임 보고서는 알리안츠 글로벌투자(AllianzGI)의 주주관여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고하는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투명성/공시가 각각 170건과 34건으로 합하면 약 60%를 차지하고 환경 리스크/영향이 77건으로 20%, 사회적 리스크/영향이 42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알리안츠의 적극적 주주행동은 ESG와 관련된 주제가 9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